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동양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光州日報

제1797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월 31일 (음력 12월 24일) 목요일

혁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규탄대회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30일 오후 교내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교수와 학생, 동문, 교직원 등 200여명이 심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로스쿨' 인구 40만 제주 1곳, 180만 전북 2곳, 350만 광주·전남 1곳

조선대 탈락… 지역민 분노 폭발

시장·지사·국회의원·시민단체 재조정 촉구

조선대 "심사기준·평가점수 공개하라" 반발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선대는 물론,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특히 호남의 대표적 사학이자, 지방대 중 최초로 법대를 설립했으며 대법관 등 유명 법조인들을 배출한 조선대의 상징성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 광주·전남지역에는 전남대 단 한군데 만이 로스쿨 예비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대구·경북 2곳, 부산·경남 2곳, 전북 2곳이 선정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선대는 30일 오후 법대 모의법정에서 조선대 총장·교수평의회·직원노조·총학생회·총동창회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궐기대회를 가졌다. 조선대는 또 학생과 교수 등 500여명이 31일 상경, 교육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퇴색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41개 대학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31일로 예정된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의혹이 해소된 이후에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로스쿨 예비선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국회에서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전원이 서명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양형일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법학교육위와 교육부, 청와대는 최종 선정대학과 정원을 재검토해 조선대를 로스쿨 설치 대학으로 선정하라"고 밝혔다.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는 교육부장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인구 350만명의 광주·전남에는 1곳을, 180만의 전북과 40만의 제주에 2곳과 1곳을 선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호남의 대표적 사학이자, 1946년부터 법학교육을 실시해 온 조선대를 꼭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해 광주·전남에 최소 2개 로스쿨이 인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도 이날 "광주·전남을 홀대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결정한 로스쿨 설치 방침을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조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을 확정했다.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등 15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방권역은 ▲광주권역에서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부산권역에서 부산대 동아대 ▲대구권역에서 경북대 영남대 ▲대전권역에서 충남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3월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주변
▶http://marathon.kwangju.co.kr ▶문의: (062)220-0541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수도권만 배 불린다

업계, 지방 시장 활성화 대책 촉구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흐르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등 지방에 대한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기고 11면〉

특히 최근 윤곽을 드러낸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대책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린 지방의 부동산시장 회복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차별화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전남지역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방침을 밝힌데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인수위 등은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표 조정 ▲주택거래세 인하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의 거래침체 상황을 타파하는 데는 일단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 부산 등 지방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대책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표 조정 대상 자체가 거의 없는 데다 양도소득세 및 도심용적률 제한 완화 등의 정책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은 새 정부의 종부세 과표 상향 조정 등의 정책에 '무풍지대'에 속한다. 특히 차기 정부는 종부세 대상을 기존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지만 지역 내에는 해당자가 거의 없다.

더구나 이는 지역 내 6억원 이상의 '1가구 2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광주·전남에는 단일 주택이 6억원을 넘는 주택조차 없는 실정이다.

반면 서울은 '20년 이상 보유에 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가 15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남(5가구)과 서초(2만9천가구), 송파(2만5천가구) 등 3개 구에서만 10만가구 이상이 종부세 과표 조정시 혜택을 받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가 또 급락… 코스피 1600선 붕괴

코스닥도 29.56P 하락

국내증시가 급락하며 8개월여 만에 1,600선이 힘없이 무너졌다. 〈관련기사 11면〉

30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48.85포인트(2.98%) 급락한 1,589.06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지수는 지난해 5월15일(1,589.37) 이후 8개월 만에 1,6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날 지수는 20거래일째 계속된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막혀 하락세로 반전했고 이후 개인과 기관마저 순매도에 동참하면서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9.56포인트(4.67%) 급락한 603.11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3월6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여파로 600선을 위협받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어전용 교사 2만3천명 채용

인수위, 2013년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013년까지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 2만3천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인수위는 30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어 공교육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기본 생활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조원을 투입해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우선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1조7천억원의 국고지원을 통해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TEE) 교사 2만3천명을 2013년까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2009년부터 매년 3천명의 현직 영어교사가 국내외에서 심화연수를 받도록 하고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3~6학년)에서 영어를 영어로 하는 수업시간을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010년부터 중3, 고1의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본격화해 2012년에는 중·고교의 모든 회화 중심수업을 영어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한국형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해 2013학년도부터는 4개 평가영역 중 듣기·읽기 영역만 평가하고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듣기·읽기·쓰기·말하기 등 4개 영역 모두 평가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암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MBC문화탐방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광주/전남 - 북 여행사 판매, 광주MBC문화탐방 사무실 ■문의 : (062) 226-6070